

‘정신 못 차린’ 음주 운전자들... 음주전력자 증가세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자

음주운전·사고 매년 감소세 불구 음주전력자 사고 매년 40% 넘어 2회 이상 음주 행정처분건수 늘어 2차레 음주운전 시 방지장치 부착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고 있음에도 음주전력자 적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2023년 1만3042건 등 총 7만595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으로 매년 4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음주전력자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602건, 2021년 532건, 2022년 439건, 2023년 372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2020년 883건, 2021년 683건, 2022년 629건, 2023년 530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총 1만8283명에 달한다.

광주지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020년 1874건, 2021년 1637건, 2022년 1743건, 2023년 1869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남에서는 2020년 2770건, 2021년 2641건, 2022년 2677건, 2023년 3072건으로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8월2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촌동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자전거 운전자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전력자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할 위

험이 큰 사람의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5년 이내에 2차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박소진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처벌의 엄격성보다 처벌의 확실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자체를 못 하도록 막게 되면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단속 적발 후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빠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북구, 재충전 프로그램

고 있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5일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충전(Re:refresh) 프로그램’ 퍼스널 컬러 진단 나만의 색 찾기’에서 이미지메이킹 강사로부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

나건호 기자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 광주 광산경찰

광주 광산경찰청은 최근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많은 유흥가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지역, 다중밀집장소 등 광산구 전 지역에서 교통경찰·기동대·지역경찰 등 단속경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김상철 기자

광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전국 최다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건수 높아 “초고령 사회 고려한 정책 수반”

광주지역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

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지역은 2020년 1000건, 2021년 1032건, 2022년 1059건, 2023년 1303건으로 총 4224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은 2020년 1950건, 2021년 1905건, 2022년 1903건, 2023년 2159건으로 크게 증가해 총 7917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대전이다. 이어 제주·전남·대구 순으로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분류해 2020년부터 4년 후의 증감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1만6825→2만1653) △안전거리 미확보(3291→4670) △신호 위반(3539→46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192→2389) △중앙선 침범(1462→1766) △보행자 보호 불이행(918→

1445)으로 모든 유형의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위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후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며 “미래 사회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 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